국제발음기호(IPA)와 正音표기

	전설		근전설		中설		근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i [ㅣ]	y [ㅟ]			ɨ [으ㅣ]	ʉ [ㅜㅡ]			ɯ [으]	u [ㅜ]
근고			ɪ [이]	ʏ [ㅟ]				ʊ [ㅝ]		
중고	e [에]	ø [ㅚ]			ɘ [ㅓㅣ]	ɵ [ㅗㅡ]			ɤ [ㅡ]	o [오]
中	ɐ̞ [ㅔㅣ]	ɞ [ㅚㅣ]			ə [ㅗ+•]				ɤ̞ [허]	o̞ [ㅗㅣ]
중저	ɛ [ㅐ]	œ [ㅚ]			ɜ [ㅅㅓ]	ɞ			ʌ [ㅓ]	ɔ [오]
근저	æ [ㅣㅐ]				ɐ [ㅏ]					[ㅣㅏ]
저	a	ɶ							ɑ [ㅣㅏ]	ɒ [아]

[æ] lamb [læm 랟] chance [tʃæns 챈스] africa [æfrikə 애ᄑᆞ릐ᄏᆞ] apple ['æpl 애쁠]
men [멘] vs man [먼] said [세드] vs sad [샏드] guess [게쓰] vs gas [갸쓰]
expensive [잌스펜싵] vs expansive [잌스퍈샌싵] head [헤드] vs had [햬드]

[ɒ] rock [英rɒk 뤅] [美rɑːk 뢐] box [英bɒks 벅쓰] [美bɑːks 박ː쓰]
hot [hɒt 헡/hɑt 핱] stop [英stɒp 스텁] [美stɑːp 스탑] want [英wɒnt 원ㅌ]

[ɔ] walk [wɔːk 워크] vs work [美wɜːrk 웕ᄏᆞ] [100] door [dɔː(r) 더어] four 풔 all 엏
because 비커스 coffee 커픠 salt 썲트 fall 퓳 off 어ᄑᆞ(엏) austria 어스트리아
wrong [美rɔːŋ 뤙 [101] 英rɒŋ] warm [wɔːrm 웚] want [美wɔːnt 원ㅌ 英wɒnt]

[ʊ] bush [븏쉬] cushion [킋션] put [풑] sugar [싞겋] fool [ᄑᆞ뭁]
book [붘] look [뤅] goods [귵스] mouse [마읒스] cook [쾈]

[ø] heureux 욀릐 [œ.ʁø] fabuleux 퐈빌릐 [fabylø] amoureux 아뭏릐 [a.mu.ʁø]

[œ] cœur [쾨흐] sœur [쐬흐] œuf [외ᄑᆞ] œuvre [외블흐] œil [œj 외힌]

[ɑ] heart [핱hɑːt 햝hɑːrt] dark [닼/닿ᄏᆞ] father [퐈덪] charge [챠지 tʃɑːdʒ]

[oʊ] home 홈 alone 얼론 phone 폰 most 뫂쓰 boat 봇트 goal 굘 grow 그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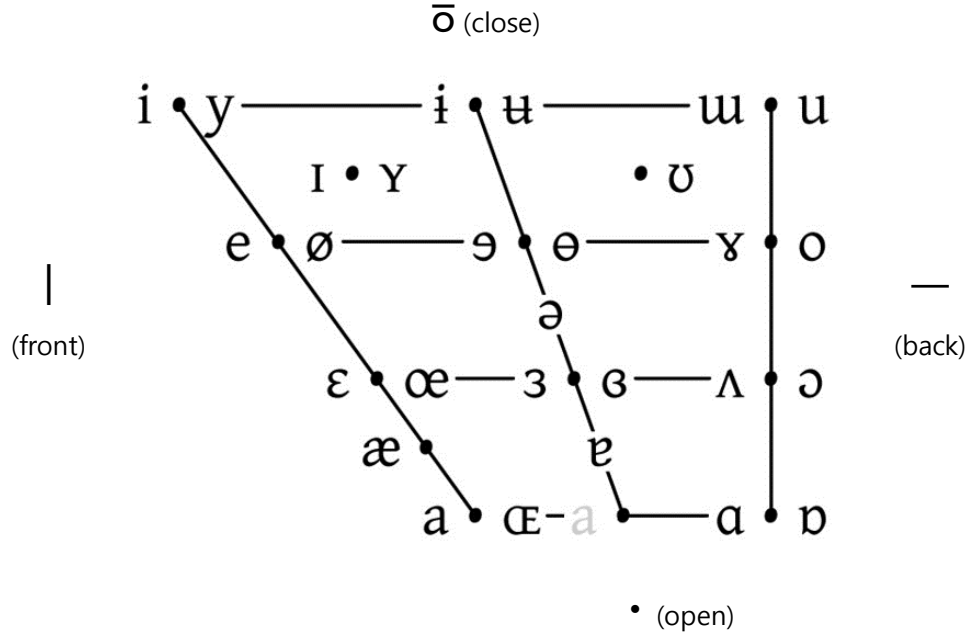
100) 모음뒤에 weak-r이 있을 경우 단어에 따라 초성ㅇ 또는 종성ㅿ을 사용한다. ex) 웕ᄏᆞ 더어 웚

101) ɔ/ɒ을 변이음(allophone)로 보아 [ㅣㅏ]로 동일하게 표기하였기에 want의 英 vs 美 표기가 동일하다.

【모음나침반】에는 i-포함하는 모음조합이 4개(진술축미) 있으며 각각의 발음법

	IPA 기호	발음법	모음위치
辰 ㅟ	y	i를 발음하는 혀위치에서 ㅜ발음	전설모음
戌 ㅚ	ø	i를 발음하는 혀위치에서 ㅗ발음	〃
丑 ㅖ	e	i를 발음하는 혀위치에서 ㅓ발음	〃
未 ㅐ	ɛ	i를 발음하는 혀위치에서 ㅏ발음	〃

참고로 œ[ㅚ]의 발음법은 입술을 o모양으로 하면서 ㅐ를 발음하는 것인데.
모음사각도 œ위치가 ɛ의 옆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œ는 전설모음이며 i를 포함한다.



ㅎ가 포함된 히 흐 헤 허 표기의 의미는 설면을 팽팽하게 펴고 발음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음을 발음할 때는 혀가 살짝 bending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혀바닥 위쪽의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ㅎ가 오면 혀를 평평하게 경직을 유지해서 발음한다.

·가 포함되면 평소보다 턱을 더 크게 벌리라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발음성향은 효율를 추구하여 구강속에서 혀의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서구에서 만든 모음사각도에서 입을 가장 크게 벌려야 하는 a ɶ에 해당하는 모음은 없으며, [ɑ]발음을 ㅏ로 표기하고 [ɒ][ɔ]발음을 ㅓ로 표기할 수 있다.

북	o͞ sunset	flatness of tongue plane	[ɪ]히 [ɯ]흐 [e]헤 [ɤ]허 vs ㅣ ㅡ ㅖ ㅕ
남	• sun	open your jaw further	[ɒ][ɔ]ㅓ [ɑ]ㅏ vs ㅕ ㅏ
동	| tree	front vowel	ㅟ ㅚ ㅖ ㅐ 에는 공통적으로 ㅣ가 들어있음
서	— ground	back vowel	ㅜ ㅗ 에는 공통적으로 ㅡ가 들어있음

【모음나침반】의 활용가치는 보편적 모음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조합시 형충파해/원진귀문이 발생하는 비선호 모음조합이 뭔지도 알려준다는 것이다.

A-1	육합				本암합			방합			
보편적	에	ㅚ	ᆞㅐ	ㅜㅣ	ㅞ	ᆞㅓ	ㅚ	허	ᆞㅏ	ㅟ	ㅗㅣ
IPA	[e]	[œ]	[æ]	[ʊ]	[we]	[ɒ] [ɔ]	[ø] [wɐ̯]	[ɤ]	[ɑ]	[wi]	[oʊ]
非선호	해	ㅙ	ᆞㅔ	ㅡㅣ	ㅝ	ㅕ	ㅖ			ㅠ 102)	ㅡㅣ

예를 들어 [ɔ]의 正音표기를 찾을때 ᆞㅓ 이외에 ㅕ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ʊ]에 ㅜㅣ 대신 ㅡㅣ를 염두하거나, [oʊ]에 ㅗㅣ대신 ㅡㅣ를 떠올릴 수 있지만 【모음나침반】에서의 조합계산을 통해 한쪽방향으로 정해진다. 훈글워드에서 ㅗㅣ의 입력이 불가하여 [oʊ] 포함단어의 예시에서 ㅡㅣ를 사용해 표기해 보았으나 영 부자연스럽다. (ㅡㅣ는 沖을 포함하고 있음)
home/ alone/ phone 등에 들어간 [oʊ]발음의 정음표기 적장자는 ㅗㅣ이다.

혹자는 [ʊ]를 표기할때 정신사나운 ㅜㅣ보다는 ㅡㅣ(원진)가 낫지 않냐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bush cushion fool book등 옆 페이지 단어를 발음할때 ㅡㅣ(ㅡ→ㅜ)식으로 하면 영맞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ㅡ→ㅜ순서로 압축시켜 발음해야 ㅜㅣ[ʊ] 발음에 가까워진다.

한편 스웨덴/폴란드/日語에 등장하는 [ʉ]발음을 ㅡㅣ로 표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lut [slʉːt 슬륱] ut [ʉːt 윹] du [dʉː 듀] miód [mjʉ̟t 미윧] いう [iʉ 이우]

중설 비원순 고모음 ㅓ[ɤ̞]에 대해서 저런식으로 표기해서 어찌 사용하라는 건가? 의문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같은 level에 전설 고모음 i[ㅣ]이 있고, 후설 고모음 ɯ[ㅡ]가 있으며 그 가운데에 ㅓ[ɤ̞]가 있으니 논리적으로 합당한 위치이고, [ɨ]가 ㅡ→ㅣ순서로 거의 동시발음하듯 [ɨ]는 ㅣ→ㅡ순서로 동시발음하는 것이다. 이때 종이에 손을 베듯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나오는데 중국어의 설치음 z c s를 [즈 츠 스]로 표기해 볼만하다. 폴란드어 철자y가 이 발음을 지칭하고 있으며 그외 retroflex인 cz dż sz rz(ż)의 이해 또한 ㅓ[ɤ̞] 발음이 핵심열쇠가 된다. 권설음 표기에 종성ㅿ를 쓰는 것을 본받아 츗/즛/슷/싓로 표기하면 폴란드 단어속에서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며, 유성계열 dż rz(ż)를 모음앞에서 즛(즤)/싓로 표기하고 무성계열 cz sz를 츠/스로, czy szy rzy를 츠 스 싓 로 표기해보면 卯酉충 ㅓ[ɤ̞]의 유용성과 파워를 알게 된다.
폴란드어는 서쪽 슬라브어 계통의 언어로 전세계에 4천만명 정도의 speaker가 있으며, z 조합의 cz rz sz dz dź dż로 인해 Szymankowszczyzna [슈만코브슈츠스나] Szczebrzeszyn [슈첸브줴싄] Grzegorz Brzeczyszczkiewicz [그줴거싓 브줴츠슈츗켸뷔츠]등 단어가 한도끝도 없이 길어져 보이는 현상이 있으나, 철자와 발음관계는 일관성있게 유지되는 편이라서 개별 철자별로 발음을 숙지하면 긴 단어 발음도 유추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정음에서 ㅿ이 삭제되면서 한국인들의 일상에서 표기법이 사라진 [z]계열 발음이 폴란드어에서는 z[z] ź[ʑ] ż[ʐ]로 세분화 되어 있어 ㅿ계열 발음을 듣고 익히는데도 좋다. 다음단어를 forvo.com에 붙여 넣으면 원어민의 발음을 여러 버전으로 들을 수 있다.

W Szczebrzeszynie chrząszcz brzmi w trzcinie [fʂʈʂɛbʐɛ̃ʂʈʂʲbʲʂɨɲɛʲxʂʐmi fʈʂʈɕiɲɛ]
ᄒᆞ 슈첸브줴싀뉘에 ᄴᅯ슈칀 브싀미 ᄒᆞ ㅌ싀츼뉘에

102) ㅠ는 [wi]보다는 프랑스 발음 [ɥi]에 사용하려들 가능성이 있는데, 舍를 포함하고 있어 비선호 된다.